

편집국에서

최현수

편집국장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  
국내를 대표하는 ‘톱 티어’ 기업들이다. 이 대기업들이 ‘아껴둔 땅’ 광주·전남에 한꺼번에 초대형 투자를 약속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AI와 수소, 에너지 등에 수 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몰려온다니 그야말로 ‘개백’이자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늘 번방에 자리했던 광주·전남이 전례 없는 성장의 기회가 온 것이다.  
주목할 점은 투자 분야가 미래산업이라는 점이다. 바로 AI데이터센터, 수소경제, 첨단조선 및 AI 냉각 솔루션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들이다.  
수 십 년간 거덜떠보지도 않은 소외됐던 광주·전남이 이재명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오랜 불균형 구조를 완화하고, 광주전남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대기업의 직접 투자가 적어 ‘낙후의 대명사’로 불리던 광주·전남에게는 ‘미래비전’이 생길 셈이다.  
지난해 12·3 계엄 속에서 호남은 국가의 근본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탄핵으로 위기를 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탄생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기조처럼

삼성·현대·SK가 온다...광주·전남 “정전동지”

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응답이다.  
얼마 만인가? 2014년 12월,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추진으로 2014년 12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역 산업의 대전환 계기가 될 굴지의 대기업의 투자는 극히 이례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AI 인프라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인수한 유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플렉트그룹(플렉트)의 한국 생산라인을 광주에 건립한다. 플렉트는 광주에 생산라인 건립과 인력 충원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삼성의 개별 공조와 플렉트 중앙공조 사업을 결합해 ‘글로벌 공조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광주가 ‘가전산업의 메카’라는 명성에 더해 차세대 고부가가치 공조기기 생산 거점으로 도약이 기대된다.  
‘미래 산업의 산업의 쌀’로 불리는 AI의 핵심 인프라가 전남에 구축된다. 또한 삼성ADS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에 나선다. 오는 2028년까지 1만5000장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해 학계와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오픈AI와 손잡고 전남 서남권에 AI데이터센터 건립을 검토 중이다. 이 센터는 아시아지역 AI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광주 AI 기업들이 전남의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는 ‘광주·전남 AI 상생벨트’ 구축이 가능해진다.  
AI 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와 전통제조업 혁신에서도 광주·전남의 대기업 투자가 이어진다.  
현대차그룹은 그린에너지 생태계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에 1GW 규모의 PEM(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한다. 수소 출하센터와 충전

소를 구축 등 인프라도 구축해 PEM 수전해기 및 수소연료전지 부품 제조시설까지 건립해 ‘수소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조선해양은 HD현대상호 인근에 AI조선 기술 실증센터를 세워 해남 솔라시도 AI데이터센터 단지와 조선소를 연계하는 첨단 R&D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전선업계 1위 기업 ㈜LS전선의 자회사인 ㈜LS머트리얼즈·㈜LS마린솔루션이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해남에 국내 첫 ‘해상풍력 설치항만’ 구축에 나선다.  
한마디로 ‘정전동지’할 일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투자가 실현된다면 광주·전남은 지역경제에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시 없을, 그야말로 황금기회다.  
광주·전남의 미래를 바꿀 투자 물결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광주·전남이 더 이상 낙후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거듭나려면 AI와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공조, 수소, RE100 등 미래산업의 추진을 위한 광역적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대전환의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광주·전남 자치단체는 물론 기업, 그리고 지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되는 ‘광역적 협력체계’이 필요하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초광역협력(메가시티)을 추진 중이다.  
기회가 왔다. 기회를 잘 살린다면 광주·전남의 미래는 밝다. 하루 빨리 광주·전남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지혜를 모아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AI와 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통한 호남의 발전 전략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사설

‘전남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성공사례 이유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한 전남해상풍력이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상업운전에 이어 최근 1단지 준공식을 갖고 생산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전남 재생에너지 시대가 본격화됐다는 예가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신안군 연안에서 9km 떨어진 수심 10~20m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에너지 투자회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가 투자해 세운 합작법인 ‘주식회사 전남해상풍력’이 맡고 있다. 준공식을 가진 1단지는 이 두회사가 8700억원을 투입, 조성한 96MW급 발전단지로 10MW급 터빈 발전기 10기가 설치돼 있다.  
2017년 9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23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발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5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 발전기들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의 평균 가동률이 약 21.7~30%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연간 25GW 가량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정용 에어컨(1kW) 25만 대를 동시 가동하거나 약 7만50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국내 최초로 기업이 별도의 보증없이 자체 신용만으로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례인데다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이 사업의 장에였던 레이다 가려짐 우려로 인한 발전기 높이 152m 제한 등 군(市)의 작전성협의 기준을 개선했고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했다.  
기업도 이에 화답, 주민참여 제도를 통해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신안군 주민에게 공유키로 했고 공사 과정에서는 목표·신안 지역 70여개 업체와 협력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여러모로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를 남긴 것이다.  
이 두회사는 2027년 말부터 각각 399MW 규모로 2단지와 3단지도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원자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 총 900MW급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남해상풍력 사업이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AI인재 양성요람 ‘광주 AI 사관학교’ 진화중

광주 인공지능(AI) 사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개교한 AI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이 학교는 최근 6기 수료식을 갖고 307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2020년 1기 155명을 시작으로 2021년 2기 157명, 2022년 3기 302명, 2023년 4기 302명, 2024년 5기 305명에 이어 이번까지 총 1528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 것이다.  
1~5기 졸업생 취·창업률은 71.2%에 달하며 6기도 78명이 이미 조기 취·창업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매년 전국에서 지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실제로 1기 모집때는 경쟁률이 무려 5.8대1을 기록했으며 3기때부터 교육인원은 330명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배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광주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는 등 AI 중심도시로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의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데다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교육생에게 교육 기자재 제공, 기숙사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AI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AI 기술 등을 교육시키며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한 몫했다. 실제로 6기의 경우 교육과정이 기존 3개에서 AI 데이터 기술, AI 비즈니스 등 5개과정으로 확장됐으며 980시간이었던 교육시간도 1300시간으로 늘려 현장기반의 실전역량을 강화했다. 18개 기업이 참여한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운영해 약 58건의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7년 차를 맞는 내년부터는 그동안의 실무 중심 교육에서 고급·심화 교육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즉 산업 현장의 직무 수요에 맞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AI전문가 멘토링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해 미래 AI산업을 선도하는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SW 최고 전문가 멘토링 중심의 ‘AI·SW 마에스트로 과정’을 도입키로 했고 사업비 105억원 전액도 국비로 확보했다.  
AI인재 양성의 요람 AI 사관학교의 진화는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예가다.

기고

‘AI·빅데이터’ 김·전북 양식 성장 동력 활용해야

박성재

전남도의원



올해(2025년산) 전남 지역의 물김 생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남 물김은 생산량·생산액 모두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김 생산의 심장부’임을 입증했고, K-푸드 열풍과 맞물려 김 수출액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해수면 온도 상승, 양식 생물의 질병·폐사, 영양염류 변동 등으로 전남 어업인들은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수온 상승으로 김 채묘와 수확 시기가 해마다 흔들리고, 전복 양식 현장에서는 고수온기마다 먹이인 다시마가 녹아내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위협이다. 전통적 경험과 감(感)에만 의존한 양식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양식 산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양식장 곳곳에 수온, 염분, 영양염류, 용존산소 등 해양 환경 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

는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축적·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축적된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 최적의 채묘·수확 시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선제 대응할 수 있다.  
다행히 전남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을 떴고 있다.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이 전남도해양수산물확원과 협력해 추진되고 있다. 전남의 핵심 양식 주산자인 고흥, 신안, 완도, 진도, 해남 등 5개 군을 대상으로 해양 환경과 양식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에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ICT 기업이 참여해 △수산양식 지능형 플랫폼 △AI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현장 실증 및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실제 어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양식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수산양식업 종사자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행사와 의견수렴회를 열어 주요 장비와 시스템을 시연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실제 수요자인 어업인들이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어장 위에서 작동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면 어장 환경 예측, 사육 관리 자동화, 생산·유통 효율화, 품질·안전 관리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AI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양식어장에 첨단 기술이 지속적으로 접목·확대된다면 기후변화라는 외부 변수에 수동적으로 휘둘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어장 환경을 미리 예측·관리하며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양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변화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어장 환경 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장기 재정 지원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동시에 어업인 교육·컨설팅, 청년 인재의 어촌 유입, 전문인력 양성 등 ‘사람에 대한 투자’와 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영양비밀 보호, 기관 간 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 등 제도 정비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  
전남은 이미 김과 전복을 비롯한 수산양식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해 온 지역이다. 여기에 AI와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동력을 결합한다면 전남 수산물은 K-푸드를 넘어 글로벌 프리미엄 수산 브랜드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우리 전남의 어업인들이 AI 기반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남 수산물에 명실상부한 K-푸드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어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하고, 풍요로운 전남의 바다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

취재수첩

3년 만에 최저...광주 분양시장의 현실

송대웅

경제부 차장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에 다시 한 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지방 거래량이 반등 조짐을 보였지만 광주만큼은 예외인 상황이다. 미분양 누적과 회복 더딘 수요라는 지역 특성이 맞물리며 분양심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12월 광주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44.4에 그쳤다. 불과 한 달 전 71.4에서 27p나 급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낙폭

이자 2022년 11월(40.9) 이후 3년만의 최저치다.  
표면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금리 부담이 주요 원인처럼 보이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공급 부담’에 대한 체감이 더 크다는 반응이 많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시기에 신규 물량이 몰리는 구조가 분양사업자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앞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는 2027년 상반기까지 1만3711호가 입주할 예정이다. 기존 재고 소화 속도에 비해 공급은 더 빠르게 늘어나는 셈이다. 사업자 입장에서선 단기 공급과잉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반면 기존 매매시장은 실수요를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 흐름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온기가 분양시장으로 확산되지 못하

는 점이 이번 지수 급락의 핵심이다. 분양가 대비 기대수익이 낮고, 실수요 중심 거래에서는 청약·전매를 통한 차익 기대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남의 분양전망지수는 50.0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광주만큼의 심리 급랭은 없었지만 역시 광망세가 짙다. 전국도 72.1에서 66.3으로 5.8p 하락하며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분양가격 전망지수(101.6)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모두 분양가 인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사업자들은 시장이 얼어붙었는데도 가격은 낮출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번 지수 급락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기존 매매시장 회복과 분양시장 침체라는 ‘엇갈린 흐름’이 동시에 드러난 결과다.  
당분간 광망세가 더 깊어질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결국 시장 회복의 핵심은 미분양 정리와 실수요 회복 속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정경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는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